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. 24(목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장 주종완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김경현 •☎ (044) 201-4138, 413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작년 12.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(포스코컨소시엄)하였으며, 착수보고회를 1.2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-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전 반대주민과의 약 30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‘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’을 시행(‘18.6~11)하였고,
 -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측·반대위 측 추천 전문가(14인) 들로 ‘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’도 구성하여 3개월간(‘18.9~12),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.
 - 또한,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(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)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·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.
- 착수보고회(1.22) 당일 반대 주민들이 세종청사에 착수보고회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방문과 관련하여,
 - 착수보고회는 용역기관이 발주처와 관계기관에 과업 진행계획과 방향을 최초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통상 내부회의로 진행되나,

○ 반대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 하였음에도 반대주민들은 당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여 참여하지 않았고,

- 또한 당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되어 있던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.

□ 끝으로 국토부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(지난 1.22 제안)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, 반대주민측의 협조를 정중히 요청하는 한편,

○ 향후 기본계획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2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겨레, 1.23(수)) >

- ◆ 세종서 '제2공항'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...제주 민심 '부글'
 - 국토부, 세종에서 사실상 비공개 2공항 용역 착수보고회
 - 대책위·단체 '절차적 투명성 정면으로 부인한 것' 반발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